仁術로 '통일의 길' 여는 '오월정신' 전령사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목 차〉

제1부 되짚어 본 5·18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5·18항쟁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통로 역할을 했던 인요한 소장이 지난 22일 순천기독진료소에서 결핵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순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

"북한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부터 변해야 합니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승고한 뜻을 '화해'와 '평등' 정신으로 승화시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외국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 통역을 맡아 '시민군의 입' 역할을 했던 인요한(50·존 린튼)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에게 '5월'은 남다른 의미다.

지난 1997년부터 북한 곳곳을 누비며, 의료지원을 하는 등 대북 관련 인술을 펼치게 된 정신적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인 소장의 진외증조부(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인 유진 벨 선교사는 기독교 불모지인 호남 지역에 교회와 광주숭일고교, 수피아여고, 목포 정명여고, 여수 애향병원 등을 세웠다. 또 인 소장 집안의 4대에 걸친 '한국사랑'은 유진 벨의 사위인 윌리엄 린튼 선교사로 이어지고, 린튼 선교사의 아내(샤롯)와 아들(휴 린튼·인소장의 아버지)로 계속됐다.

인 소장은 그동안 350억여원을 모금해 북한 주민 30만명을 치료하고, 240여곳의 진료소에 의료장비를 지원해 줬다. 또 매년 2~3차례 북한을 방문해 결핵 병원과 요양소 등을 직접 둘러보며, 지원해준 의료 용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95~97년 계속된 홍수와 가뭄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또 결핵에 의한 사망이 한 해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 정부가 미국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고, 그에게 결핵 퇴치 사업을 공식 요청한 것은 남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지원하는 '평등' 정신 때문이다.

응급의학 전문가인 인 소장은 순천에서 의료활동을 벌이던 지난 1993년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해 국내 응급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응급의학 체계가 전무한 북한에도 앰뷸런스 시스템을 똑같이 전수해줬다.

"광주항쟁 당시 도청 안에서 무전기를 고치던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젊은 시민군에게 5천원을 주며 부품을 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군이 '상인들이 우리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아저씨가 '아무리 이런(시민군이 도청을 점령한) 상황이라도 돈은 줘야 한다'고 호통쳤습니다. 정의와 원칙을 지켰던 5월 정신이 담긴 일화입니다."

5·18때 외국 언론 통역 맡아 '시민군의 입' 역할

350억 모금 北주민 30만명 치료·의료장비 지원

지난 1980년 5월25일 당시 연세대 의과대학 1학년이었던 그는 "광주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에 삼엄한 계엄군의 경비를 뚫고 광주로 향했다.

계엄군을 만나면 미대사관 직원을 사칭하는 기지를 발휘해 무사히 옛 전남도청에 도착한 그는 해외 언론들이 통역이 없어 광주의 참상을 제대로 취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의 도움으로 외신 기자와 시민군 사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기자회견이 열릴 수 있었다.

"당시 도청에는 타임, 뉴스위크, 워싱턴포스트 등 6개의 해외 언론이 있었는데, 이날 오후 3시간가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군 대표가 참여해 '북을 겨누고 있던 남쪽의 모든 총구가 광주를 겨냥하고 있다. 군인들이 학생,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고 있다'고 호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인 소장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항쟁이 끝난 뒤 한국 정부는 그를 미국으로 추방하려고 했으며, 어딜 가든지 정보기관과 경찰이 뒤를 쫓았다.

"한국 정부가 저를 포함한 3명의 미국인을 광주항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추방할 것을 미대사관에 요구했고, 저의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아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에 남기 위해 문무대(육군종합행정학교 내 훈련시설)에 입소해 군사 정권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무대를 나오면서 광주 시민들을 배신한 것만 같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의료와 교육 활동을 펼친 집안의 '한국 사랑'을 이어받기 위해 문무대에 가야했던 현실은 그에게 평생의 한이 됐다. 그래서인지, 그는 바쁜 대북지원 활동 중에도 두 달에 한 번은 꼭 고향 순천으로 내려와 순천기독진료소와 결핵재활원에서 지역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국내 결핵 퇴치 역사에서 인 소장의 집안을 빼놓을 순 없다. 인 소장의 어머니 로이스 린튼(한국명 인애자) 여사는 순천에서 결핵재활원을 운영해 30년 이상 결핵퇴치사업을 펼쳤다. 이제는 인 소장이 이어받아,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이 중국이 아닌 남한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많은 의료시설을 지원해 북한 주민이 건강을 되찾고, 이를 통해 한민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006년 순천 제12회시민의 날을 맞아 '순천시민의 상'을 수상하는 인요한 소장(왼쪽).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